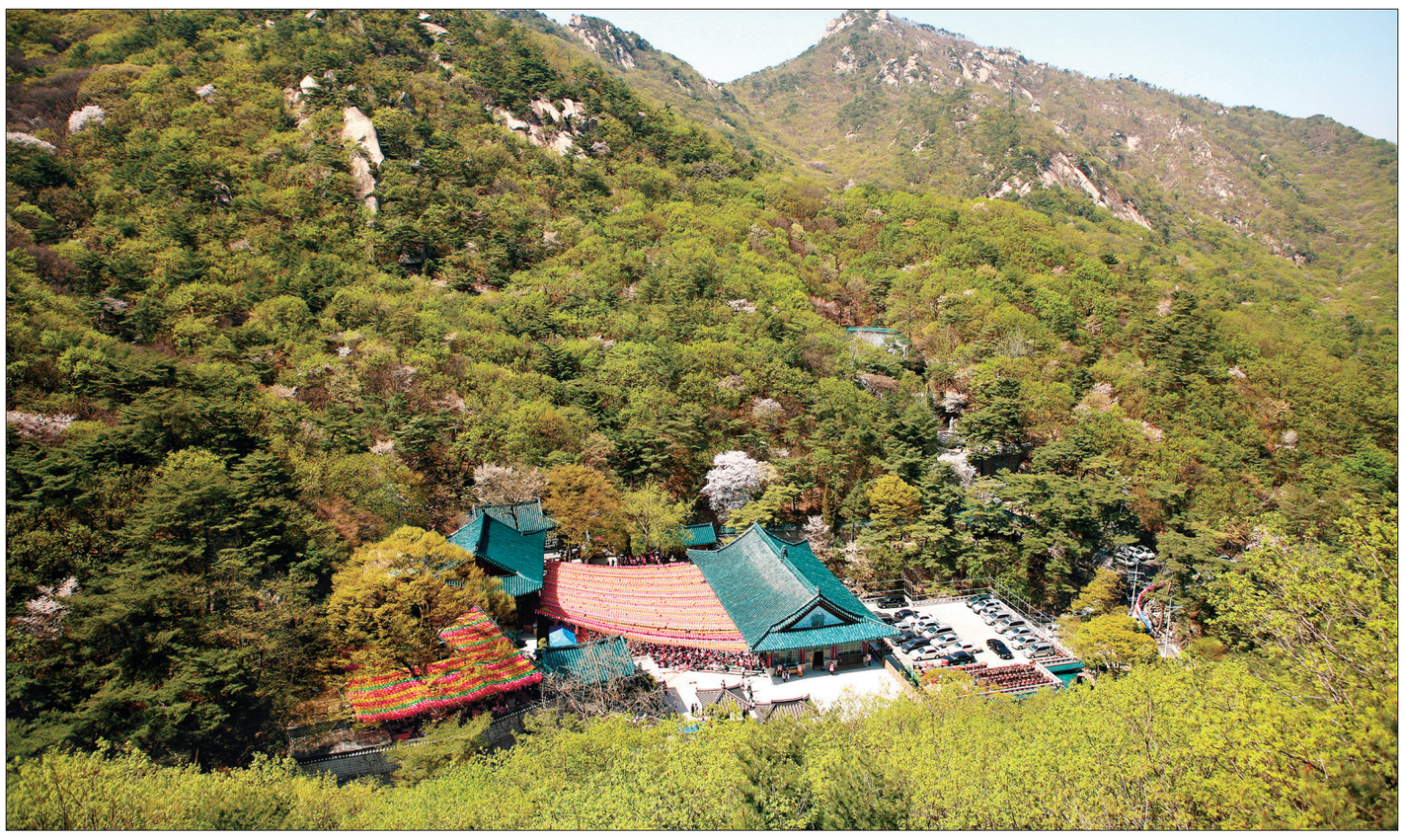
왕실과 산성 인연 담은 비찰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⑧ 도선사(道詵寺)



북한산 도선사의 전경. 정의공주 원찰에서 시작해 현대의 기도 · 포교사찰로 거듭났다.

세종 둘째딸 정의공주 원찰
육영수 여사와도 인연깊어
청담 스님 수행 · 전법 원력
도선사의 새로운 불사 성취

세종딸 정의공주 원찰 도성암

우이동에서 북한산 백운대로 오르다보면 도선사가 나온다.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가 개산조이다. 처음부터 도선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조 기록에 의하면 도선사의 명칭은 도성암(道成庵)이었다.

도선사 아래 동네 지명은 우이동(牛耳洞)이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이어지면서 고개를 이루는 곳이 우이령(牛耳嶺)이다. 이름에 걸맞게 그곳엔 소귀를 닮은 우이암(牛耳岩)이 있다. 조선조에서도 그렇게 불렀으니 동네 이름의 연원이 오래된 편이다.

우이동에서 동쪽으로 방학동으로 가다보면 연산군 묘를 지나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남편 죽산 안씨 양효공 안맹담(安孟聃)의 묘가 나온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영민했던 공주를 아꼈다. 정의공주는 세종 10년(1428) 2월 안맹담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세종은 꾀를 내었다. 그와 술마시는 지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 일로 지인들의 출입이 적어지면서 자연히 술자리도 줄었다.

이 무렵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음과 토를 붙이는 문제가 난제였다. 세종은 여러 자식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모두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 총명했던 공주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종은 마침내 15년(1433) 한글 창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세종은 한글 창제에 공헌한 공주에게 많은 토지와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왕실과 혼인하여 가문의 명예가 높아졌는데 아내의 지혜로 큰 재물을 얻은 안맹담은 죽산 안씨 대동보에 이를 기록하여 후손에 남겼다. 성종 8년(1477) 2월 정의공주가 죽자 도성암을 원찰로 삼았다.

북한산성과 도성암

정의공주의 원찰이었던 도성암도 배불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역사 속에 도성암이 등장하는 것은 선조 29년(15%) 3월이다.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병조판서 이덕형이 중흥동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려 올렸다.

산성을 묘사하는 글에 도성암이 등장한다. 동문으로 통하여 왕래하는 길로 성 밖에 수도암, 도성암 등의 암자가 있고 그 밑은 곧 우이동이라 하였다. 이어 도성암 위는 사면의 산세가 높고 험절하다. 10여 인이 지켜도 적 수 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 중첩된 산봉우리가 원근을 가리고 있어 적이 성을 에워싸고자 함락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산허리 요해처에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망보게 하고 그 속에 곡식을 비축하여 굳건히 지키면 천험(天險) 만전의 형세가 될 것으로 묘사하였다.

선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 때에도 도성암은 존재하였다. 광해군 7년(1615) 2월 유생들이 무계서원을 건립하고자 할 때 도성 근처에 서원 건립이 전례가 없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자 지성균관사 이이첨이 정토사(淨土寺), 향림사(香林寺), 승가사(僧伽寺), 도성암(道成菴) 등의 사찰은 도성 밖 10리 이내에 연접하였으나 이에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유현(儒賢)의 향화를 받드는 곳에 대해 그 거리의 원근을 따져 저지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라 하였다.

이 무렵까지 유지되었던 도성암이 숙종 6년(1680) 7월에는 폐사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한성부에서 도성암 옛터를 한성부에 예속시켜 벌목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자 이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의 내용을 유추할 때 임진왜란 이후 사세가 어려워지면서 폐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성암은 정의공주의 원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험준한 곳에 있었던 탓에 폐사되었지만 산성 덕분에 중흥되었다.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을 겪은 조선은 북한산성을 정비하였다.

숙종 37년(1711) 서울 백성들과 삼군문(三軍門)의 군사를 동원하여 산성을 축성하였다. 공사기간이 6개월이었다 하니 인부들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다. 축성이 끝나자 숙종 41년(1715) 산성 내 중흥사가 136칸의 큰 절로 중수되면서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인근 사찰들이 산성관리를 위해 중흥되었다. 도성암 역시 숙종 39년(1713) 7월 중창되면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이때 중창되면서 사명을 도선사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대 육영수와 청담 스님

도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이야기 할 때 육영수를 빼놓을 수 없다. 법명이 대덕화(大德華)였다. 그녀가 도선사와 인연이 맺은 것은 5.16이후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였다. 청담의 호국참회불교에 감화를 받은 것이다.

호국참회불교는 신라불교의 통일염원, 고려불교의 호국염원, 조선불교의 구국염원, 그리고 현대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하여 미신불교가 아닌 수행불교 이론불교가 아닌 실천불교 관념불교가 아닌 생활불교로 불교재흥을 도모한 사상이다.

당시 남북의 팽팽한 대치 속에 내적으로 부패한 정부, 혼란한 사회질서, 극심한 가난에 직면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한 청담의 사상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었다.

육영수는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선사를 찾아 3.7기도를 하였다. 이런 신심은 1974년 8.15기념식장에서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불심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불자였다. 우이동에서 도선사 입구까지 험준한 산비탈임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닦여져 있는 것도 불심 깊은 그녀의 배려였다.

도선사의 사세는 현대에 와서 크게 번창하였다. 한국 현대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청담이 이곳에 머물면서 조계종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청담의 생애(1902-1971)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와 격변의 현대사회를 살았다. 그 생애를 크게 나누어보면 일제강점기에서 보낸 생애 전반부와 광복 이후 현대사회를 보낸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담은 그 현실 속에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일제의 지배로 한국불교의 전통이 상실되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방해와 기득권을 장악한 집단의 방해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염원이 담고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청담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고심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점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종단의 지도자로 새로운 산업사회 속으로 진입한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그 가운데 승가교육은 종단의 장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불사였다.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해 불교전문학교를 세우는 일을 서원으로 세울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승가대학의 설치였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하여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개조였다. 그가 도제교육을 현대화하려는 것은 젊은 대학 출신의 엘리트를 승려로 만들어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지도이념에 충실하고 철저한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청담은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으로 불경 번역을 꼽았다. 그런 생각은 일제하에서 불경 번역에 크게 기여한 용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1962년 1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내는 공개 건의문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팔만대장경의 국역이었다. 팔만대장경을 국역하여야 하는 이유는 남녀노소가 한번 읽음으로써 불법의 교리를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일로 여겼다.

60년대 이후 70년대 초 그는 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내는 몇 안 되는 수행자였다. 종단의 행정수반과 종정을 지내면서 한국불교의 기본방향이 그에 의해 세워졌다. 한국불교가 우리의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교단체제의 변화와 신앙관 전환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를 염원하였다.

도선사의 새로운 도전

인구가 줄고 거기에 불자의 수가 감소하는 요즘 한국불교의 포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도선사가 행한 불사가 가운데 현대포교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108산사순례이다. 이 순례는 사찰참배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불사이다.

지금까지의 산사순례 대부분이 자신의 복을 비는 참배였다면 108산사순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순례이다. 참가하는 신도수도 많을뿐더러 이들이 그곳에서 펼치는 새로운 포교의 모습은 신선하다. 순례단은 참배를 마치면 사찰 앞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를 본받아 인천을 비롯한 여러 곳의 사찰에서 108산사 순례단이 발족하였다. 마음 같아선 대도시 많은 사찰들이 순례단을 조직해 도시와 지방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한다면 한국불교 발전에 한 축이 될 것 같다.

도선사가 추진한 또 하나의 도전은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과 인연 맺기이다. 한국사회는 많은 이주자들이 존재한다. 그 시작은 지방에 사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겪는 외국여성들의 고초는 심각한 것이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불심으로 감싸주었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기 되면서 조국을 떠나온 외국여성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불사라 할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